

[보도자료] 바이브컴퍼니, AI Summit Seoul 2023서 바이브 서치·챗봇, 썸트렌드 등 선보



<사진 = 부스 행사장에서 시연 중인 바이브컴퍼니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참관객들의 모습>

바이브컴퍼니(대표 김성언, 이하 바이브)가 국내 최대 규모 AI 지식 컨퍼런스인 AI Summit Seoul 2023(AIS 2023)에 참여해 자사 주요 솔루션인 바이브 서치, 바이브 챗봇, 썸트렌드 등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AIS 2023은 올해로 6회째 진행되는 행사로 AI와 산업의 융합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기관, 학계 전문가 등 대규모 전문가들이 모여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올해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글로벌 테크, 엔비디아, 지멘스, 스테이빌리티 AI, 허깅페이스, 네이버 등 국내외 대표 AI 기업들이 참여해 AI 산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바이브는 이번 행사에서 전시 부스로 참여해 자사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바이브 서치(VAIV Search), 바이브 챗봇(VAIV Chatbot), 썸트렌드(Sometrend) 등 서비스 및 솔루션을 선보여 참관객들의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바이브 서치는 올해 6월 출시한 바이브의 LLM(대규모 언어모델)인 바이브GeM(VAIVGeM) 기반의 AI 검색 솔루션이다. 이는 할루시네이션 이슈를 완화하고 보안성을 강화한 사내구축형 솔루션으로 제공,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간의 첨단 초거대 AI 활용 지원 사업'에서 네이버, KT, 마음AI와 함께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려 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수요에 맞춰 PoC(기술 검증)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바이브 챗봇은 AI 챗봇 솔루션으로 기존 암센터, 우정사업본부, 법무부 등 구축 사례를 통해 특히 전문 도메인에서 성능을 인정 받았으며, 최근 SaaS 기반 챗봇 솔루션으로 고도화해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서들을 분석해 자동 질의응답셋을 생성해주는 바이브Q&A 솔루션을 활용한 자동 지식 구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이브 서치를 연동해 답변의 정확도를 높였다.

썸트렌드는 451억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와 관련한 사람들의 생각을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최근에는 산업별 특화 분석뿐만 아니라 이종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할 수 있는 '썸트렌드 클라우드(Sometrend Cloud)' 서비스를 신규 론칭, 각 산업에 맞게 커스텀 대시보드 기능을 지원하고, 소셜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 데이터와 쇼핑몰 세일즈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통합 마케팅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브 김성언 대표는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 지식 컨퍼런스인 AIS 2023에 참여한 다수의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자사 기술과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며 “현재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PoC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자사 기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서 기업이나 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부스 사진>

